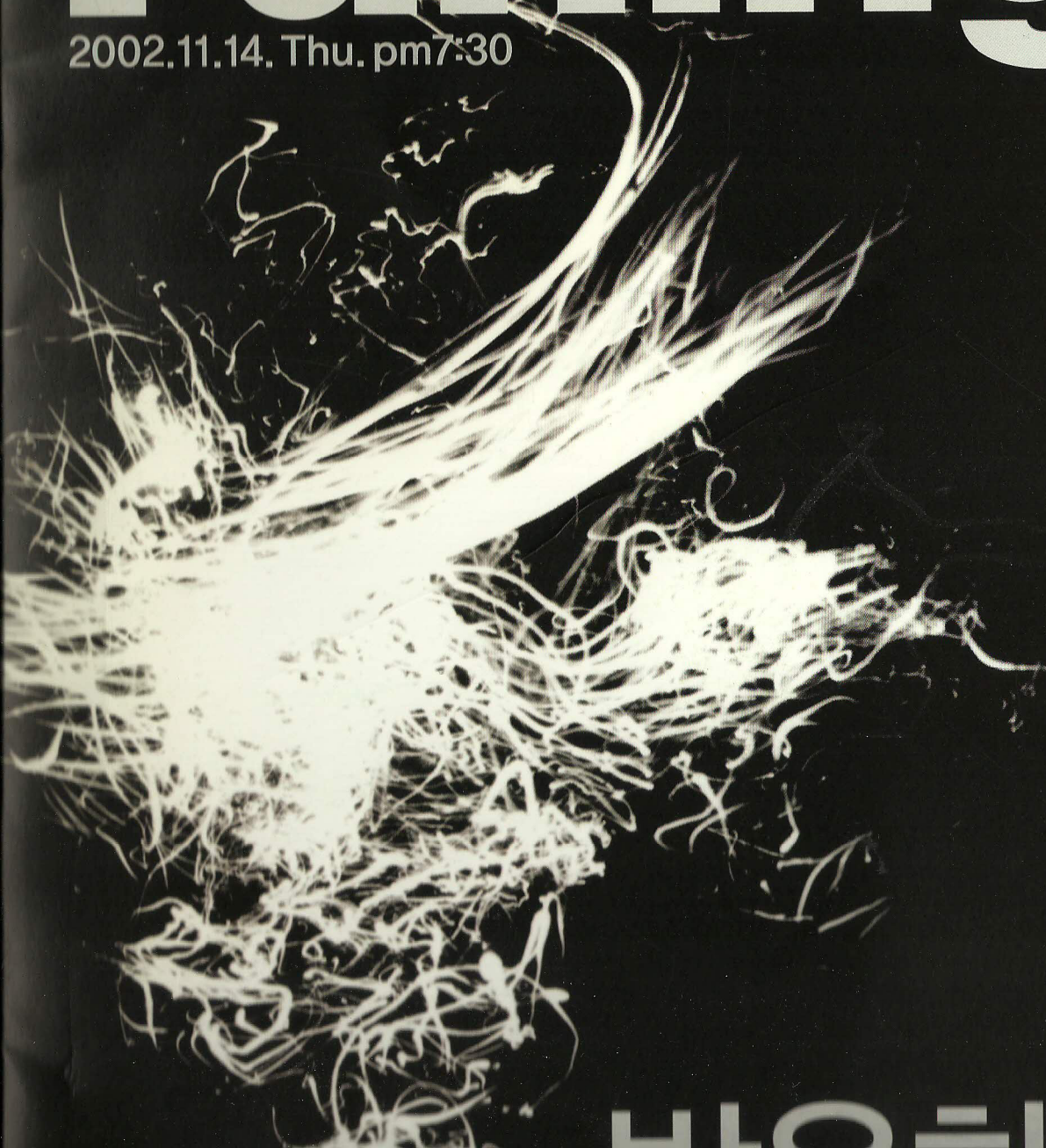


Tuning

2002.11.14. Thu. pm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반우하현대초

Tuning I

공연을 거듭하면서 메너리즘으로 빠지지 않는 박은화의 창작력에 믿음이 간다. 「Tuning」에서 박은화의 몸과 연결된 치마불꽃은 세미이고, 상대적으로 건진 의지는 씻김이며, 그 씻김을 통한 해리에서 무주의 생사관(生死觀)과 만난다. | 춤평론가 김영태 춤지 2000. 6. |



Tuning II

박은화가 제 몸의 한기(寒氣), 소품을 손바닥으로 건어내는 장면, 머리칼에 묶인 부적을 떼어내며 벌렁 넘어질 때 검은 치마 속에서 드러나는 입벌린 하체 등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 춤평론가 김영태 춤지 2000. 7. |

주술적인 여성의 보이스가 잠재된 내면의 나를 일깨운다는 소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박은화가 양팔을 들고 회전할 때의 움직임과 속도감, 바닥에 흐트러진 종이조각을 발로 차버릴 때 들리는 새소리, 그리고 치마를 양손에 잡고 천천히 돌아 움직일 때의 자유스러운 몸짓 등이 산만하지 않은 깔끔한 구성과 조화를 이루어냈다. | 춤평론가 장광렬 춤지 2000. 7. |

수많은 인형을 커다란 원형으로 바닥에 깔고 중앙에서 움직이는 박은화의 솔로이다. 움직임이 크거나 많지는 않지만 격력한 감정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근년에 만든 그의 작품 가운데 수적으로 꼽는다. 힘김의 작은 인형과 검은 옷을 입은 박은화의 미세한 몸짓, 그 중후한 느낌에서 지아의 심연으로 돌아가려는 안무가의 몸부림을 볼 수 있다. 검은 무대, 검은 조명, 지역의 좋지 않은 극장 조건이었음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청리가 잘 되어 있다. | 춤평론가 김경애 춤지 2000. 7. |





Tuning III

『튜닝III』은 '혼돈'을 다룬 주제이다. 빛과 그림자 놀이는 이 척박한 시대를 방관할 수 없는 아누스의 얼굴인지도 모른다. 박은화의 장점은 두 번째로 광섬유(불빛이 닿으면 반짝이는 빛의 전달과정)를 춤에 끌어들었던 늘 새로운 도전 정신에 있다. 그의 춤은 그래서 한 곳에 안주하지 않는다. '혼돈'의 주제는 그러므로 '나는 내 속의 나와 어떻게 일치하는가, 내 속에 강한 빛을 투사해 그림자를 없앨 때 일어나는 기(氣)는 무엇인가. 인형이 매달려 있는 양복걸개 등을 피사체로 제시했듯 그림자로 남겨지는 '이 세상의 허공, 또는 허(虛)'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쏟아 붓는다. 박은화의 자신과의 싸움은 카롤린 칼송과 〈어둠〉이라는 작품에서 만났던 요아킴쿤 음악, 즉흥 연주하는 혼돈, 질서, 그밖에 아누스의 얼굴로 드러난다. 춤추는 사람의 얼굴이 없는 광섬유의 폭풍은 빛의 발현과 차단 그리고 남겨진 그림자였다. | 춤평론가 김영태 몸지 2001. 4. |

이 작품은 빛과 어둠에 대한 움직임의 실험이다. 미세한 빛의 양의 차이가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 바뀌면서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실험한다. 혼란, 질서, 아누스를 한꺼번에 보이고 싶은 안무자의 의도는 빛의 연출자로 관객의 호기심으로 이끌었는데, 정교한 스펙클 같은 조명의 효과가 작은 비중의 그림자 장치와 극적 변화를 일으킨다. | 춤평론가 김경애 춤지 2001. 3. |

빛과 소리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일체의 조명 테크닉이 생략된 채 박은화의 몸에 부착된 빛과 소리만이 검은 공간을 질주해 나갈 뿐이다. 중앙에 버티고 서있는 반짝이는 물체, 정지된 채 빛의 효과만을 유발하던 물체는 점점 확대된 움직임을 선사하며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파급되어 간다. 혼란, 질서, 환영 등등의 빛으로 덧칠된 박은화의 몸부림은 주술적 마력과 어떤 심오한 경지의 생명감을 안겨준다. | 춤평론가 성기숙 춤지 2001. 3. |

Tuning V

무음의 공간에서 시작되는 이 춤은 상당부분 무녀(巫女)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박은화는 현대무용가로서 현대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되 늘 원초적인 힘의 배분을 느끼게 하는 무용가이다. 주술적인 무엇이 있다. 지아를 해 해하는 귀절은 기장과 이와의 융합된 시체무장의 극대화된 느낌 그스중이의 무지렁이에서 갑자기 크게 회전하





Tuning II

초연 | 2000. 5. 30. / 대전 엑스포아트홀 대강당

제2회 대전 무용페스티벌 초청공연

안무·춤·의상·무대 | 박은화

음악 | Kirile Loo

내용 | 내 속의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를 불러내어 본다

나의 밖에 붙어있는 인형놀이를 멈춘다

그대로의 내가 되고 싶다



Tuning III

초연 | 2001. 2. 21. /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

제4회 한국 안무가 페스티벌 초청공연

안무·의상·무대 | 박은화

춤 | 정미영

음악 | Joachim Kuhn

내용 | 내 속의 빛을 찾고 싶다.

어둠 속에서 화려하고 혼란스러운 나의 빛을 본다.

그 빛 속에 갇혀 있는 또 다른 나의 빛은 울부짖고 흐느낀다.

혼란, 질서, 아누스의 그림자

내 속의 강한 빛으로 혼란스런 빛이 사라지게 하고 싶다.



박은화 현대무용단 "자유"는 박은화가 1991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에 재직하면서

박은화 현대무용단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1995년 현대무용단 자유를 창단하면서

그 명칭을 함께 사용하며 작업하고 있는 전문 무용단체이다.

"자유"라는 단어는 진정 자유한 자에게는 필요치 않는 단어이다.

우리에게 있어 자유란 권리와 의무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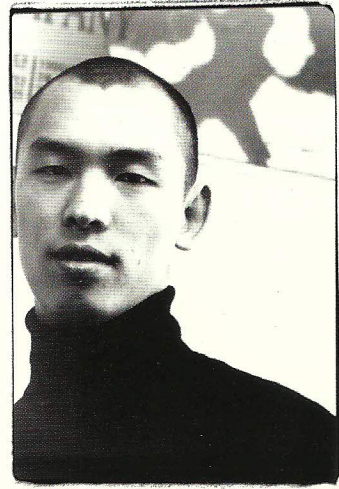
'직업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몸이 진정 자유한가?' 를 들여다보게 된다.



박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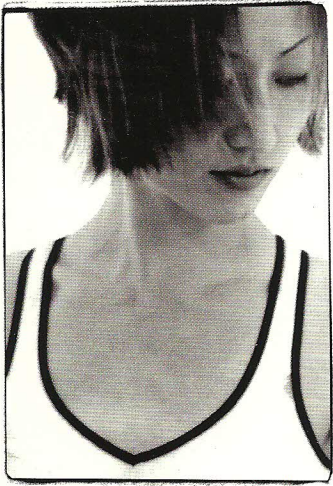


김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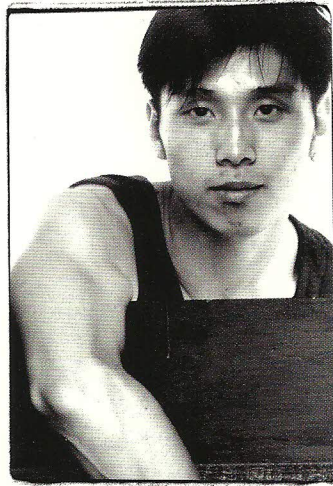


김태희

Park Eun Hwa Dance Company



정미영



정진우



박재한



서혜은



이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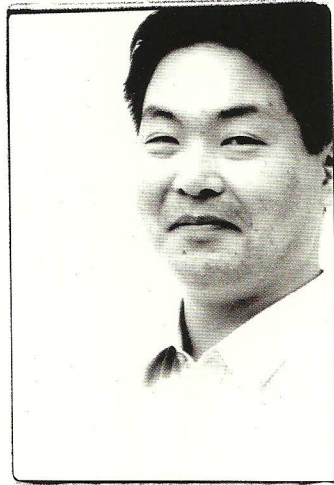
황

“FREE”

Special thanks to...



이소라



음악·연주 / 신봉주



연주 / 황